

# 미혼모의 혼혈아동 양육여부 결정과정에 관한 상담 사례연구

백 연옥\*

## I. 목적

미혼모가 아동을 키울 마음은 있으나, 어떤 이유로든 현실적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때에, 사회복지사는 미혼모에게 그녀가 아동과 스스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미혼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그녀가 그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미혼모가 한번 선택한 결정은 미혼모 자신의 태도나 미혼모의 상황 또는 주위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미혼모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돕는 동시에, 그녀가 내린 결정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한 준비 역시 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가 미혼모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접근 방법과 그 이론적 배경도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변화하여야 한다.

본인은 임상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의 이론적 배경으로 reasoned-action theory와, 본인이 이 이론을 적용하여 도출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사례는 혼혈 아동을 둔 편모와의 상담을 다룬 것이다.

## II. 이론의 소개

본 사례에서는 클라이언트인 친모의 결정이 변화함에 따라, 그녀를 도와주기 위한 접근 방법도 변화하였다. 처음부터 Reasoned-action theory를 적용하기는 하였으나, 처음 아동을 친부에게 떠나 보내기 위해 그녀와 아동의 심리적 준비를 돕는 과정에서는 애착이론에 의한 애착사정을 하며 헤어짐의 준비를 하는 것에 주 초점을 두었다가, 나중에 아동의 입양 결정 여부를 돕는 과정에서는 친모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이 최선의 선택을 내리도록 Reasoned-action theory만을 적용하였다. 본 글의 목적이

Reasoned-action theory의 사례 적용을 소개하는 것에 있으므로, 애착사정은 후에 사례의 진행과정에서 함께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Reasoned-action theory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표된 미혼모에 관한 글이나 논문들에 의하면, 미혼모의 아동 양육 여부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들로는 미혼모 가족원들의 미혼

\* 미8군 병원 사회복지사

모의 임신에 대한 의견, 가족의 지원 정도, 미혼모의 인지 발달 정도, 담당사 회사업가의 평가, 그리고 미혼모의 대안 고려 능력등을 들 수 있다. 대개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들 중의 하나만을 다루었으며, 위의 여러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Reasoned action theory는 미혼모가 아동의 양육 여부를 결정하도록 돕는 상담 과정에서 미혼모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뿐 아니라, 그녀의 상황적 요인들까지 함께 사정함으로써, 미혼모로 하여금 최선의 결정을 내리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내린 결정의 변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이론은 1975년에 Ajzen & Fishbein에 의해 미혼모 상담에 적용된 이후, 미국 실무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계속되는 검증에 의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인정받았다<sup>1)</sup>. 이 이론은 미혼모의 의사 결정에서 첫째로, 미혼모의 행위와 행위의도간의 관계, 둘째로, 미혼모의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을 중요하게 본다.

### 1. 행위의도와 행위간의 관계

Reasoned-action theory에서는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인을 그사람의 행위의도(---하려고 한다고 마음먹는 것)라고 본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의도대로 행동하지만, 때로는 행위와 행위의도가 다를 수도 있다. 아동 양육 여부의 결정에는 미혼모 가족의 지지 정도 또는 친모의 양육능력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미혼모의 행위 의도대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여기에 시간도 행위의도와 행위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 양육 여부를 결정하는 상담에서 미혼모의 행위의도와 행위의 관계는, 미혼모에게 의도를 질문하는 시기와 미혼모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에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행위의도의 사정시기와 실질적인 행위 시기의 간격이 길수록 둘사이의 상관관계는 보다 적어진다. 왜냐하면 시간 자체의 영향외에도, 행위의도와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사건(예; 가족이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든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다든지, 제외되었던 대안에 대해 고려하게 된다든지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가 표현하는 행위의도를 가지고 어느정도는 미혼모가 선택하는 대안의 변화가능성을 예측할 수는 있다. 행위의도는 하고저하는 행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미혼모의 행위 의도(아동을 양육하겠다 또는 포기하겠다고 마음먹는 것)는 미혼모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행위들(아동을 양육하거나, 포기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인 확률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모의 행위 의도를 질문할 때는 그 행위의도의 주관적 확률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Jaccard(1981a)는 여러대안 중에서 한가지 대안에 대한 행위의도의 주관적 확률이 편중되어 높을 수록 행위를 예측할 수있다고 했다. 다시말하면 아동을 양육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에

1) 이 이론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연구자들로는 Ajzen & Fishbein(1980)과 Jaccard & Wood(1986)가 있다.

대해 처음부터 확실한 생각을 가진 미혼모의 행위는, 그녀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처음의 행위의도대로 그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나, 이와 반대로 모든 대안에 대한 미혼모의 주관적 확률이 낮아서, 행위의도가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다른 가족구성원들, 관계자 또는 시간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최초의 행위의도가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미혼모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2가지로 보인다. 즉 양육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미혼모에게는 적어도 4가지 대안이 있다.

첫째는 포기하는 것

둘째는 친인척의 도움없이 아동을 편모로 양육하는 것

세째는 친부와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

(예: 친부와 결혼하거나, 또는 미혼모가 친부의 승인내지 묵인아래 아동을 키우는 것으로 한다)

네째는 친인척의 도움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것.

그러므로 미혼모와 아동 양육 여부 상담을 할 때에는, 적어도 위의 4가지 대안 각각에 대한 행위의도의 주관적 확률의 파악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그 주관적 확률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여야 한다. 미혼모가 그녀의 행위의도를 표현 할 때에는, 주로 그 당시에 가장 주관적 확률이 높은 대안 하나만을 표현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다른 대안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4가지 대안 각각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파악하지 않으면, 현재 표현하는 행위의도가 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서 두 미혼모가 있는데, 둘 다 아동을 포기하겠다고 행위의도를 밝혔다고 해보자. 첫번째 미혼모는 아동을 포기하고자 하는 행위의도가 매우 강하여, 각 대안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90:10:0:0일 수 있고, 두번째 미혼모의 경우에는 각 대안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60:10:0:30일 수 있다. 여기에서 두 미혼모가 모두 아동을 포기하겠다는 행위의도를 표현했으나, 행위 의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은 90:60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첫번째 미혼모의 경우에는 상황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행위의도대로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나, 두번째 미혼모의 경우에는 상황이 변화한다면 행위의도대로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이다.

처음부터 한 대안에 대한 행위의도의 주관적 확률이 100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둔 가운데 미혼모의 행위를 예측하려면, 미혼모의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리 사회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행위의도의 결정 요인들

Fishbein & Ajzen은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가지로 본다. 첫째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개인의 태도이고, 둘째는 사회적인 요인으로 규범적 신념이다.

먼저 심리적 요인인 개인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Fishbein &

Ajzen은 태도를 주어진 대안을 행위로 옮겼을 때 나타날 결과의 장단점(확실성 부분)에 대한 개인의 신념(평가 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 좀 더 설명을 하면, 개인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느낌(평가 부분)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느낌은 결과의 장단점(확실성 부분)에 대한 그 개인의 신념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인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대안에 대해 고려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 한 미혼모는 학교를 중퇴해야 한다(행위 결과의 장단점-확실성 부분)고 생각하며, 이 결과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신념-평가 부분). 같은 상황하에서도 다른 미혼모는 학교를 중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행위 결과의 장단점-확실성 부분), 혹 학교를 중퇴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신념-평가부분). 학교를 중퇴하게 되는 것을 확실시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아동을 포기하는 대안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높아질 것이고, 아동을 포기하겠다는 행위의도를 표현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학교를 중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혹 중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아동을 포기하는 대안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낮아질 것이고,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양육하는 대안이나, 친부와 결혼하는 대안등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개인마다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똑같은 대안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각 개인의 태도에 따라 선택하는 대안이 달라지고, 표현하는 행위의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혼모의 행위의도가 단순히 그녀의 태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미혼모에게 의미있는 사람의 의견 또는 사회의 규범은 미혼모의 행위의도와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개 미혼모에게 의미있는 사람의 의견은 그 사회의 규범을 대변하며, 미혼모는 이러한 규범에 대해서도 신념을 갖는다. 여기에서는 이것을 미혼모의 규범적 신념이라 한다. 규범적 신념 역시 두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규범 영역이고, 둘째는 동기 영역이다. 규범 영역은 미혼모가 어떤 대안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미혼모의 인식을 의미한다. 동기 영역은 미혼모가 얼마나 상대방을 만족 시켜주려 하는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혼모의 규범 신념이 친부가 아동을 포기를 원한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규범 영역과, 친부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동기 영역으로 이루어졌다면, 아동 포기 대안에 대한 미혼모의 주관적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경우에 따라 미혼모는 여러가지의 규범적 신념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친부 그리고 담당 상담원등이 개입되어 있고, 이들의 규범영역이 각기 다르고, 각자에 대한 동기 영역 또한 다를 경우에는 누가 미혼모에게 보다 더 의미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각 대안에 대한 행위의도의 주관적 확률이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개입되는 상대방(의미있는 주위 사람)은 사회가 미혼모가 어떤 대안을 선택하기를 바라는가를 이야기하므로, 이들에 의해 표현되는 규범은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인 규범을 대변하는 것이 된다.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와 규범적 신념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미혼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미혼모에게는 태도가 규범적 신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으며, 어떤 미혼모에게는 규범적 신념보다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어떤 미혼모에게는 둘다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중요할 수도 있다. 물론 종교, 사회경제계층 또는 인종등도 미혼모의 행위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들 변수의 영향은 태도와 규범적 신념속에 흡수될 것이다.

Reasoned action theory의 장점은 임상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미혼모의 행위의도와 행위의도의 변화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Reasoned action theory를 정리해보면, 미혼모의 행위의도는 각 대안에 대한 미혼모의 태도와 규범적 신념에 의해 결정되며, 한번 표현된 행위의도와 행위의 관계에서 불일치의 정도(행위의도의 변화가능성)는 고려되는 대안들에 대한 미혼모의 주관적 확률의 정도에 달려있고, 주관적 확률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이때 시간과 함께 미혼모의 행위의도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첫째,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의 장단점에 대한 신념의 변화로 인한 미혼모의 태도의 변화, 둘째, 미혼모를 둘러싸고 있는 규범의 변화로 인한 미혼모의 규범적 신념의 변화이다. 여기에서 미혼모의 태도와 규범적 신념 역시 주관적 확률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 III. 사례 소개

#### 1. 클라이언트의 배경

클라이언트의 성별 : 여  
 연령 : 현재 42세  
 학력 : 국졸  
 거주지 : 평택

클라이언트(이후 친모)는 첫번 결혼에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집에서 쫓겨났으며, 그후 강원도에 2 자녀를 둔 홀애비와 2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는데, 역시 아이를 낳지 못했었다. 고향인 경기도 평택으로 돌아온 친모는 인근 미군부대에서 세탁부로 일하다가 어느 아저씨 소개로 흑인 미군인 친부를 만났고, 둘은 얼마후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동거중 친부는 결혼을 청하였으나 전남편과 법적으로이혼이 되지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에 응하지 못한채 동거를 계속하던중, 3년(86년)후 여아를 출생하였다. 딸이 생후 1년 되었을 때 친부는 본국으로 귀국하였다. 현재 흑인 혼혈인 딸은 7세가 되었다.

친부와 친모 사이의 개인적인 서신연락은 5년전 부터 끊어졌으며, 그때부터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친부의 봉급에서 양육비만 전신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하에서 친모는 3년이 넘게 미군부대 법률사무소와 감사사무소를 찾아다니며, 아동에게 미국시민권을 주어 아동을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여, 1992년 4월 27일 본인을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다.

## 2. 진행 과정 소개

친모는 딸과 함께 온 첫번째 면접에서, 자신이 찾아온 목적은 아이를 친부에게 보내거나, 아동을 입양을 보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나는 친모와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신뢰감을 가질수 있도록 천천히 대화를 시작하였다. 친모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혼자서 아동을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말하고 싶어했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슬픔, 불안감과 두려움을 토로하였다. 친모의 북바친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은 후에, 나는 친모에게 가능한 5가지 대안들을 제안해보고, 혹시 이미 그런 대안들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내가 제안한 5가지 대안은 1) 아버지에게 보내는것 2) 입양을 보내는것 3) 친인척의 도움없이 계속 편모로 양육하는 것 4) 친인척의 도움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것 5) 시설에 의뢰하는 것이었다.

친모는 부모외에는 도움을 청할 만한 친인척이 없는데,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생활을 하는 노부모에게 아동을 보낼수는 없다고 하였다. 시설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만일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아동이 놀림감이 되게 시설에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혼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친모는 첫째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 둘째 안정된 직업이 없으므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는 것, 셋째 아동이 흑인 혼혈인데, 한국에서 편모 밑에서 자라는 경우, 사회가 점점 더 아동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 넷째 무엇보다도 자신이 아동을 키우는 것이 너무 벅차며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것등 이었다. 친모는 편모로써 아동을 키우는 것에 대해 단점만을 이야기 하였다. 내가 제안한 5가지 제안중에 제안3, 제안4, 제안5의 주관적 확률은 0:0:0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면서 친모는 친부에게 보내든 입양을 보내든, 아동이 미국에서 성장하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모는 자신이 아동을 사랑하며 양육하고 싶지만, 자신은 능력이 없고, 아동을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을 미국으로 보낼때의 장점은 그것이 아동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신념이었고, 아동을 미국으로 보낼 때의 단점은 아동과 헤어지는 것에 따른 가슴 아픔과 슬픔이었다. 친부에게 보낼 경우의 또다른 단점으로, 친모는 지금까지의 친부의 태도를 보아, 친부가 아동을 데리고 갈 것인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래도 법적으로 완전히 헤어져야 하는 입양을 보내는 것보다는 친부와 생활할수 있기를 원하였다. 처음 제안1과 제안2 각각의 대안에 대한 행위의도의 주관적인 확률은 50:50인 것으로 보였으나, 상담이 진행되면서 입양보다는 친부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것이 분명해져갔으며, 각각의 행위의도에 대한 주관적 확률은 60:40 정도인것으로 나타났는데, 입양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40정도로 높은 이유는 친부가 지금까지 친모에게 보인 태도와 행동(무반응 또는 무관심)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친부의 무관심과 무반응이 다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양이라는 대안에 대한 주관적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나는 관심을 기우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가능한 빨리 친부에게 연락을 주기위하여 전보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다음 약속시간을

일주일 후로 정하였다. 면접 초기에 아동이 무척 산만하여 친모가 계속 큰소리로 말해야 했기 때문에, 면접이 힘들어 다른직원에게 아동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도록 하였다. 친모와 분리된 상황에서는 아동은 친모를 찾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조용하게 혼자서 잘 놀았다.

일주일후 친부의 상관으로 부터 친부가 아동을 원한다는 소식과 필요한 서류를알려달라는 소식을 접수하였다.

다음 약속시간에 친모가 아동과 왔을 때 친모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복잡한 수속절차와 아동과의 헤어지는 것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서로가 준수해야될 사항들을 종이에 써서 서로가 지킬것, 해야할 것들을 설명하였다. 서류 수속과정이 적어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아동과 어머니가 서로 헤어지는것, 아동에게 아버지를 알려주는것, 그리고 아동에게 미국생활을 알려주는것을 친모와 아동과 함께 해야 한다고 이야기되었다.

3번째 면접에서는 헤어지는 것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아동과 친모의 애착 사정( A Child's Journey Through Placement, Fahlberg 1991 )을 다음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했고, 아동의 전체적인 발달상황을 보았다.

관찰 checklist: 애착을 사정할때 보아야 할것들 #3 취학아동들	
아동은 . . . ?	부모는 . . . ?
자신을 좋아하는것 같이 행동하는지? 무엇을 완성하면 자랑스러워 하는지? 나누어 가질줄 아는지? 어른이 시키는것을 받아들이는지? 좋다 싫다를 말한다?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지? 실수하는 것을 인정한다? 여러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는지? 눈을 마출수 있는지? 잘 웃는지? 의식이 발달되어가는지? 몸을 편하게 움직이는지? 어른과 이야기할때 편한지? 잘 웃는지? 부모가 신체적으로 접근할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 다른형제들 또는 또래아이들과 잘 지내는지? 기타:	아동의 학업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부정적 느낌의 표현을 받아들이는지? 아동의 overture에 반응 하는지? 또랑아동들과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아동을 지지해주는지? 형제들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공평한지? 먼저 애정의 표시를 시작하는지? 적절한 훈육방법을 쓰는지? 아동의 나이에 적합한 책임을 주는지? 기타:

4번째 면접에서는 아동과 가족사진을 보고 ecomap을 그렸다. 그리고 친모에게 아동과 함께 Life Book을 만들수 있도록 사진과 아동에 관한 기록등을 준비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제부터는 이주일에 한번씩 만나기로 하였다. 친모는 아동과 함께 언제나 상담시간을 잘지켜서 약속한 시간에 아동을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

친부의 상관에게 답장을 보내고 2 개월이 지나도록 친부로 부터 답장이 없었다. 다시 전보를 보냈을때 친부는 군을 제대하고 친조모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친부와 전화 통화를 하여 서류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후 아동의 미국 시민권을 만들기 위하여 친모쪽에서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을 미대사관에 제출하고, 친부로 부터 필요한 서류가 오기를 기다렸다.

친부가 군대를 제대한 92년 9월 부터는 더 이상 친부로 부터 양육비가 오지 않았다. 양육비가 오지 않자 친모는 생계에 관한 걱정과 과연 친부가 아동을 언제 데리고 갈것인가에 대하여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0월 두번째 면접에서 친모는 몇일전 친부와 직접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친부는 그녀와의 통화를 거절하였다고 말 하였다. 그녀는 마음이 안좋았으며 많이 실망하고 있었으며, 기분이 매우 우울하였다. 친모는 이제 직장을 잡고 일을하여야 하므로 나에게 아동을 데리고 올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친모가 슬픔과 친부에 대한 분한 감정에 취해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감정 토로를 일단 그녀의 grief process로 받아들였다. 나는 친모와의 관계를 계속하려면, 재사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았다. 나는 우선 당장의 아동 양육대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녀가 아동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의식주 문제, 생활영역, 종교, 친모의 가족과의 관계, 할수있는 직종, 직장을 잡으러 나갈때 택아문제등을 이야기하였다. 친모는 집안식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며 아이를 봐줄 친척도 없다고 하였다. 모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일단 직장을 먼저 구한후 아동은 유료탁아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후 친부로 부터 필요한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1 개월에 한번 내지 두 번씩 미국에 전화를 걸었다. 언제나 친부는 서류를 보냈다고 하지만 서류는 도착 하지 않았다. 등기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래도 도착 하지 않았다. 93년 1월 부터는 친부에게 전화 하면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적이 없으며 할 수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친모는 이것 저것 아무일이나 부정기적으로 하다가, 93년 2월 부터 다시 세탁부로 일하게 되었다. 2 개월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몸이 아파서 한동안 직장을 쉬어야 하며 아이도 돌봐주지 못한다고 전화가 왔었다. 아이는 당분간 시골 노부모가 키워주기로 했으며 신학기 까지는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친모는 그때까지 연락이 없으면 입양을 보내 달라고 하여,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아동 양육에 관해서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93년 4월이 되자 친모와 상담을 시작한지 일년이 넘게 되었다. 친모와 다시 상담을 하였을때 아동양육에 대한 대안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친모는 더 이상 친부가 아동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 하였다. 이 때 친모는 처음에 다음으로 행위의도의 주관적 확률이 높았던 입양을 대안으로 결정하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친부의 태도를 알기 위하여 친부에게



전화연락을 취하고 더이상 반응이 없으면 아동을 한국법에 의하여 해외로 입양 보낼 것이라는 편지를 배달증명으로 보냈고, 친부가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친부에게서는 소식이 없었다. 이 사례를 입양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93년 6월 종결하였다.

〈 참고 문헌 〉

1. Ajzen, I. & Fishbein, M., (1975). Beliefs, attitudes, intentions, and behavior, New York: John Wiley.
2.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3. Cervera, N. J. (1993). Decision Making for Pregnant Adolescents : Applying Reasoned Action Theory to Research and Treatment, Families in Society, 74, 355-365
4. Fahlberg, Vera M.D. (1991). Child's Journey Through Placement. Indianapolis, IN : Perspective Press
5. Hartman, A. & Laird, J., (1983). Family Centered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 Free Press
6. Jaccard, J. (1981a). Attitudes and behavior: Implications of attitudes toward behavior alternativ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7, 286-307
7. Jaccard, J., & Wood, G. (1986). An idiographic analysis of consumer decision making. In D. Brinberg & R. Lutz(Eds.), Perspectives on methodology in consumer research. New York : Springer-Verlag